



미주 한인 역사 최초로 개발된 2세 청소년용 영어 신앙 교재를 두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다.

## 최초의 한인 청소년 신앙 교재 출판기념회

청소년용 <Living Between>, 부모용 <사다리...> 동시 발간



노승환 목사



박희민 목사



이정근 목사



이학준 박사

“전도서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려면’ 구절이 있는데 오늘은 웃을 때이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울 때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2세 청소년 신앙 교재가 발간된 사실에 대해 노승환 목사(KODIA 대표, 토론도 밀알교회)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교재가 처음으로 발간된 사실은 기쁜 일이 분명하지만 이민 역사 110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 교재가 없었다는 점은 그만큼 부끄러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 목사는 “우리가 차세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는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회를 떠났다”고 개탄했다.

G2G교육연구소(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 소장 이학준 박사)가 최근 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신앙 교재 Living Between(사이에서 사는 삶)과 부모용 교재 <사다리가 되어주는 부모>를 발간해 6월 2일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그동안 한인교회는 청소년들 신앙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재를 사용해 왔다. 한국의 출판사가 운데 영어 교재를 발간하는 곳들이 간혹 있었지만 특별히 미주 이민교회의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던 터였다. 현재는 10학년 교재만 완료

됐으며 11학년, 12학년 교재가 준비 중이다. 이 교재는 북미한인기독교교육연구소(KODIA, Korean Diaspora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의 후원을 받아 G2G가 제작했다. G2G는 풀러신학교 교수 이학준 박사를 중심으로 여러 1.5세, 2세 스태프들이 일하는 초교과적 싱크탱크로서, 이미 지난 2011년에 2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iDentity라는 교재를 개발할 정도로 미주 2세 교육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교재 발간에도 16명의 스태프가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는 “한인교회가 건물이나 성도 수를 자랑하기보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교회의 미래는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격려했으며 이정근 목사(유니온성결교회 원로)는 “진작 나왔어야 하는 교재다. 이 교재가 미주 한인 뿐 아니라 한국 등 해외로까지 보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 www.g2gcenter.org 626-639-8107 김준형 기자

## 동성애 교육? 편지 한 장으로 해결

종교자유 수호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부 탄생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학업이나 취업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 법률 사역을 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가 LA 지역에 한국어부를 설립했다.



태평양법률협회의 주성철 목사

현재 미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낙태, 교회 설립 및 예배 권리 등에 대한 교회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자유협회(Liberty Institute), 미국법과정의센터(ACLI, American Center for Law & Justice) 등이 각종 소송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 변론하는 대표적 단체로 꼽힌다.

태평양법률협회도 그 단체 가운데 하나로, 미 전역에 약 1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시 무료로 변론을 맡아 주고 있다. 본사는 새크라멘토에 있으며 LA 지역에도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는데, 이번에 산타에나에 한국어부를 세우고 한인들의 소송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 이미 이 단체는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병원에서 일하는 육군 퇴역 중사가 “하나님 미국을 축복 하소서(God Bless America)”라는 구절을 이메일에 사용했다가 법적 자문을 구한 후,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승리한 바 있다. 또 25년간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카운티 정부 측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Zoning)을 문제 삼아 5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을 때에도 4년간 소송을 해 결국 승소했다. 물론 모든 법률 자문 및 변론, 서류 비용은 무료였다.

한국어부 담당자 주성철 목사는 “우리 단체는 종교 자유,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후 “성경은 소송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가 하는 소송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유를 보장 받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단체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와 관련된 변호를 맡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라든지 신앙과 무관한 인권 소송, 타종교인의 종교 문제 등은 다루지 않는다.

주 목사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친동성애 교육법(SB48)에 의해,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이것을 비판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다. 이것을 금지시키려는 PRE 법안이나 Class Act는 모두 주민 투표 발의에 실패한 상태이니 이전 어쩔 수 없는가? 아니다. 우리 변호사의 편지 한 장이면 학생은 이 교육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해 준다”고 밝혔다.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는 동성애 교육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케이스 별로는 얼마든지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주 목사는 “변호사 편지 작성 및 자문도 물론 무료”라고 밝혔다. 그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 자유를 보호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문의: 714-640-7471(주성철 목사)  
 www.pacificjustice.org(영어)  
 korean.pacificjustice.org(한국어)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교의료상조의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인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미주총신대 제36회 졸업예배 드려



미주총신대학교가 LA연약교회에서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미주총신대학교가 제3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24일(토) 오후 4시에 LA연약교회에서 열었다. 학위수여식은 사회 전철영 박사(학장), 기도 이재경 박사(음악대학 학장), 설교 안명환 목사(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학사보고 전철영 박사(신학대학 학장), 학위수여·훈사·상징수여 이광복 박사(총장 대행), 격려사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축사 황규철 목사(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무), 흥계환 박사(영남 장

신대 총장), 광고 조성 박사(신학대학원장), 축도 이충선 박사(목회대학원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명환 목사는 “신실한 품꾼의 길을 걷자”(레25:55)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신욱 목사는 격려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규철 목사는 축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길러서 주께로 인도하길 바란다”며 “한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학위를 수여받은 이들은 신학 학사 4명, 목회학 석사 6명, 목회학 박사 10명, 음악대학 1명, 음악대학원 3명 등 총 24명이다. 토마스 맹 기자



친선탁구대회를 위해 연습하고 있는 성도들.

## 와타틀루 종족 돕기 ‘남가주교회 친선 탁구대회’ 연다

제 10주년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교회 친선 탁구대회’가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주최로 6월 7일(토) 오전 9시 ‘배성환탁구교실’(200 S. Harbor Blvd. Santa Ana, CA92704)에서 열린다.

대회에서 모여지는 기금은 탄자니아 마쿱구 지역에 살고 있는 와타틀루 종족을 위해 사용된다. 이 종족은 아직도 전기와 물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 중 하나로, 지금까지 4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또 갈보리선교교회 이재선 원로목사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일

본과 멕시코와 에리조나 인디언 부족에게도 도움을 손길이 펼쳐지게 된다.

참가 비용은 단체전(4단식 1복식) 120달러, 개인단식 20달러, 복식 40달러이며, 접수마감은 6월 5일까지다. 주최측은 “금번 10주년 기념대회를 맞이해 약 20개의 교회 및 탁구 단체들이 참가하기로 하고 등록하고 있으며 뜻있는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운동을 통해 동포교회들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문의 : 714-722-4805 714-393-9567(송순철 장로) 714-251-0275(손흥기 안수집사) 토마스 맹 기자

## 한우리장로교회 부흥회 “‘그대로’ 법칙을 따르자”



정재률 목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그대로’ 법칙입니다.” 한우리장로교회(강지원 목사)에서 정재률 목사(동변제일교회) 초청 부흥성회가 “백배 축복의 성경적 원리”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24일(토) 오후 7시 30분에 열린 부흥성회에서 정재률 목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정하셔서 ‘복 중의 복’으로 삼겠다고 해서, 물질·만남·형통·자녀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이 땅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러시아

집회에서 소아마비를 앓는 아이를 일으킨 이야기, 귀신 들린 학생을 치유한 간증을 전했다. 정 목사는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대신대학교 신학과에 이어 영남대학교, 총신대학교를 졸업, 18년째 지역 병원의 원목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백배축복선교회를 이끌고 있다. 또 기독교상담사, 가정상담사, 웃음치료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 100개 교회 건축을 꿈꾸며 현재까지 33개를 건축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아메리칸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년 졸업식



아메리칸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졸업예배를 드렸다.

아메리칸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김혜성 박사)이 2014년 졸업예배를 5월 31일 오후 3시에 영생장로교회에서 드렸다.

총장 김혜성 박사는 졸업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돈은 일만약의 뿌리이기에 사역자는 돈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선배 사역자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 “잠언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의뢰해 법사에 그를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종교교육학 석사(M.R.E.) 1명, 목회학 석사(M.Div.) 10명, 문학 석사(M.A.) 3명, 신학 석사(Th.M.) 5명, 철학 박사(Ph.D.) 1명 등 총 20명이 학위를 받았다. 토마스 맹 기자

## 찬양교회 부흥회, “신앙생활 통해 기쁨 누리자”



임용화 목사

찬양교회(김성대 목사)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임용화 목사(천안 성문교회)를 초청, 감사 부흥성회를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했다. 5월 31일 저녁에 “영적인 사람의 기적”(왕하 5:1-14)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임용화 목사는 “만일 내가 신뢰한다면 따지지 않고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믿고 기쁨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 목사는 “우울하고 불안할지라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믿을 때 고침을 받는 것이다”라며 “사

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향락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어떤 이는 윤리적인 가치, 도덕을 잘 지키는 것에 기쁨을 두고, 어떤 이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화 목사는 이 부흥회에서 “변하면 받는 복”, “제단 축복”, “청지기의 축복”, “행복한 신앙” 등 총 5회에 걸쳐 집회를 이끌었다. 토마스 맹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여성 교역자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남가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성 교역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각자 사역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역과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함께 모일 기회가 없던 여성 교역자들이 교파와교단을 초월하여, 한국 교회 연합 제 3대 대표회장이시며 한영 신학 대학교 명예총장이신 한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대 여성 사역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듣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의미 있는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합시다.

## 주제 : 시 68:11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제목 : 성경적 여성 리더십  
일시 : 6월 13일(금) 오후 2시  
장소 : 행복한 교회  
주소 : 1716 S. Brea Canyon Cut off Road., Walnut, CA 91789  
연락처 : 박경희 목사(세계 복음화 협의회 미주 여교역자회 회장)  
전화 : 818-822-5533

강사 : 한영훈 목사  
한국 교회 연합 제 3대 대표회장  
한영 신학 대학교 명예총장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 “어려운 시기, 교회는 위기 인식하고 말씀의 능력 의지해야”

미국의 한국선교 100년을 기념하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5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개혁주의 전통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제 45회 전국 교역자 수양회를 LA 인근 퍼시픽팜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을 수호하고 계승해 건강한 목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 컨퍼런스에 300명 이상의 한국 목회자와 사모가 참석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피터 릴백(Peter Lillback) 총장이 “개혁주의 전통과 한국 교회의 미래와 다음세대(Reformed Heritage and The Future of Korean churches)”를,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의 로버트 갓프리(W. Robert Godfrey) 총장이 “서양의 눈으로 보는 한국 교회의 강점과 약점(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n Church through Western Eyes)”을, 청교도 신앙 연구의 권위자인 퓨리탄리폼드신학교(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조엘 비키(Joel Beeke) 총장이 “반기독교적 감정 및 세속화와의 싸움(How to battle hostility and secularism in Korea)”을, 선교단체 하트크라이(Hearthcry) 대표 폴 워셔(Paul Washer) 목사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Gospel Grace Applied)”를 강의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로버트 갓프리(Robert Godfrey) 총장이 강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명환 목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김기철 목사(정음성광교회),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 정재훈 박사(우주과학자),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가 예배, 부흥회 및 특강을 인도했다.

총회 둘째 날 로버트 갓프리 총장은 한국교회가 지닌 강점으로 “교육”을 꼽은 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및 약점을 교리, 예배, 사역의 차원에서 논의했다.

그는 “칼빈주의에는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칼빈도 그랬다.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제네바로 몰려들자 그는 건물도 없이 학교를 시작했다. 예일, 프린스턴 등 유명한 대학은 칼빈주의자가 지은 학교다. 1812년 프린스턴은 ‘배움 없는 열심, 열심 없는 배움’ 두 가지를 경계하는 교육이념을 갖고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칭찬하고 싶다”며 칼빈주의가 태생적으로 교육을 중시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교회의 약점을 얘기할 때가 됐다. 비키 박사가 말한 대로 한국교회의 연합함은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개혁신학은 ‘교리, 예배, 사역’에 관한 3가지

위험을 갖고 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돌아보는 잣대가 되길 바란다”며 이 3가지의 관한 한국 교회의 현황을 진단했다.

“찰스 왕이 로마 가톨릭 교회 우대 정책을 펴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핍박하자 1638년 장로교도들이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며 국가적 연약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헬서로 서명했고 그 결과 많은 순교자가 배출됐다. 이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교리, 예배, 사역 이 3가지였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다. 첫 번째, ‘교리’란 성경을 요약한 것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거지야 팽배한 세상이다.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잘못된 영향을 준다. 텔레비전이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나는 미국 정치인을 보며 그들이 바뀌었다고 느낀다. 그들은 연설할 때 항상 ‘나는 미국인의 진실됨을 믿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다.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될 수 없다. 미국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한다. 교회는 진리, 진실을 성경적 방법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는 거짓된 세상에 대항하는 방법은 말씀의 권위에 맡기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려 왔을 때, 그리스도는 성경으로 대항했다. 성경이 우리가 대항해야 할 방법이다. 루터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어느 날 루터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혁명을 꾀하며 말했다. ‘수백만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당신이 혁명을 일으키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자 루터는 ‘나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다. 하나님 말씀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 믿는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거나 다른 교파의 운동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

가?”

또 요한복음 6장을 통해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은 교회 비성장 세미나를 하신다. 어떤 교회도 교인을 줄이는 세미나를 하지 않는다. 5천명이 따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계속해서 진심만 설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자 5천명으로 시작해 12명으로 줄어든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거짓된 5천보다 진정한 열둘이 낫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로 예배의 위기에 관해 전했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시하심을 알 수 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바티칸의 장엄한 건축물을 보고 사람들은 감명 받고 있고, 오순절 파의 열정을 보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야 한다.”

셋째, 사역에 관해서 목회를 직업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열심 중 위험한 것은 전문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의대에 가면 의사가 되고 공대에 가면 엔지니어가 되듯 신학교에만 가면 전문 직업인 사역자가 된다고 착각한다. 목회자가 안정적 보수와 안락함을 더 중시하며 전문직업인처럼 살면 안된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목사는 카운슬러, 회사 CEO도 아니다. 교회가 행정하는 자를 원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한 자를 쓰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자, 말씀에 맞게 사는 자가 필요하다. 화려개혁교회에서 돈에 관한 스캔들을 보지 못했다. 이유는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 집사들이 목사에게 절대 돈을 못만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혹의 기회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눈을 들어 어떤 어려움, 위협에 처해 있는지 봐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더 강성해진 것을 보시길 바란다. 말씀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강연을 마쳤다.



“개혁주의 전통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제 45회 전국교역자 수양회가 LA 인근 퍼시픽팜 리조트에서 열렸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인사: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말까지) - 서부인사: T.213.453.6624 (마리팅어빌리티)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희자가격	\$90	240g 소희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70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25th Anniversary Celebration Concert**

재학생, 동문, 교수들이 꾸리는 따뜻한 **만남**의 무대

클래식과 컨템퍼러리의 아름다운 선율이 깃든 **감동**의 무대

온 가족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희망**의 무대

- 일 시: 6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 6월 7일(토) 오후 1시에 학위수여식이 진행됩니다.

● 주 최: 월드미션대학교 ● 문 의: 213-388-1000



#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19차 총회 시애틀서 개최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이 모여 총회 전 개회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이 시애틀에 모였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Worldwide Korean Christian Broadcasters Association) 제19차 총회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미국, 중남미 등 세계 52개 방송사에서 100여 명의 방송인들이 참석해 친교를 나누고 '전파 선교' 협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워싱턴주 한인 목회자들과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홍윤선 시애틀한인회장 등 한인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에서는 CBS 이재천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고, 전세계 한인 기독교방송사 간의 교류협력과 방송선교 사역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또 제20회 총회와 기념대회는 내년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9대 회장에 선임된 이재천 CBS 사장은 "채널 다양화와 모바일 시대 가운데 기독교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1부 개회예배는 최인근 목사(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CBS 이재천 사장과 CTS 이영표 사장, 극동방송 민산웅 사장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개회예배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교회여 연합하라"라는 주제로 설교했으며, 예배 기도는 시카고기독교 방송 김순철 목사가 했다.

소강석 목사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자신들의 종교적 기독교권을 잡기 위해 세상의 언론들과 짝해서 언론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선교가 무너져가는 오늘날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소 목사는 "동로마제국은 서로 종교적 주도권을 잡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적국과 손잡고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서 스스로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기독교 방송과 신문들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순서는 LA 기독교방송 남철우 목사의 사회로 최인근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뉴욕 기독교 TV 사장 박용기 장로가 기도, KOAM TV 고수정 간사가 참석한 내빈을 소개했다. 이어 KOAM TV 사장 고종제 총무가 광고 순서를 맡았다.

이번 대회는 분과별 회의를 비롯해 선교지 방문, 선교 보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방송선교에 대한 비전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 “한인 학생들 환영합니다”

### 센트럴신학대학원 LA 분교 개설



113년 역사를 자랑하는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이 LA에 분교를 개설하고 한인 목회자 양성과 교육에 힘을 쏟는다.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한인들에게 수여되는 파격적인 그린장학금(Green Scholarship)이다.

목회학 석사의 경우 한 학점당 360달러, 목회학 박사의 경우는 475달러인데, 한인 프로그램 학생들엔 그린장학금이 수여된다. 그러면 한인 학생들은 석사 과정은 학점당 150달러, 박사 과정은 20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이 학교는 한인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을 일종의 선교로 보기 때문에 파격적 장학금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하는 캠퍼스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분교는 캔사스 주 쇼니에 있으며 위스콘신 주 밀워키, 텍사스 주 달라스, 텍사스 주 휴스턴, 워싱턴주 시애틀 등 여러 곳에 캠퍼스가 있는 상황이며 올 가을학기부터 LA에서도 수업이 시작된다.

또 목회학 석사는 전체 75학점 가운데 3분의 2까지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다. F-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3분의 1까지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은 총 30학점이다.

이 학교는 미 주류신학대학원이 학위를 인가받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 일반종합대학교들이 학위를 인가받는 HLC-NCACS(Higher Learning Commission's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의 인가까지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학교의 학점과 학위는 미국 내 타 신학대학원과 종합대학에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이 학교는 미국침례교회(American Baptist Churches USA)에 속해 있으며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면 ABC 교단은 물론,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합동침례교회(Cooperative Baptist Fellowship) 등에서 목회자로 안수받을 수 있다.

LA분교를 담당하고 있는 서보천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는 명문 신학대학원인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이 한인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학교에서는 한인들에게 특별장학금까지 수여하며 수준높은 교육을 선교적 차원에서 제공하려고 한다. 목회학 석사, 박사 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LA 분교에서 지금 입학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8월 18일부터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 www.cbts.edu  
310-951-3153 (서보천 교수)  
김준형 기자



캔사스 주에 위치한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의 분교.

## 사모들의 축제 '블레싱 나잇' - "사모님! 축복합니다"



사모 블레싱 나잇에 이 지역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사모들의 축제 블레싱 나잇(Blessing Night)이 올해는 27일 저녁 부에나파에 위치한 힐리데이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으로는 목회자를 내조하고 밖으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OC 지역 사모 121명이 초대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민경엽 회장이 설교했으며 이어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인 유수연 사모가 간증을 전했다. 달빛신학교 김애설 교수가 축사를 전했다.

만찬과 공연에서는 신인 CCM 가수인 정하윤 양이 출연해 찬양을 불렀다. 이 행사를 위해서 나침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등 여러 교회와 여러 평신도 사업가들이 후원했다.

김나래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하,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속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하늘 문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 요한계시록 3:7-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빌라델비아는 터키 서남부에 있는 사데 교회에서 동남부로 100리 쯤 떨어진 곳에 큰 산 중턱 아래쪽 평지에 BC150년 전에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골짜기마다 있는 도시의 중심지로 건설을 했고 포도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도시로 만들었는데 헬라 문명이 급속도로 파급되어 이 지역이 헬라문명권으로 엄청난 문화 선진(先進)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라는 율법적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중에 누가 세웠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짐작하기는 정통한 진리를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사도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복음의 체계적인 교훈도 가르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불같은 역사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미 유대교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기도 하였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여기고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헛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핍박함으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문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의 사람이며 이스라엘 2대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상적으로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을 통해 건립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절대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에서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불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는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늘나라가 개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55-60에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문을 열어 그가 순교하면 맞아들이시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문이 열릴 때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와 같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신도들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잡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한 말은 어느 유능한 목사가 세워 가르친 교회가 아니라 어느 평신도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유대교의 집단이 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나라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명달아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 소망 가꾸자고 믿음 생활하는 때 순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예수님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전한 생각과 충성스러운 생활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를 모을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 인격자로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데 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을 받은 자들 몇 사람을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박해당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며 육으로는 사람과 같은 분이로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죽임당하시면서 '다 이루어다'는 이 한 마디는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같이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서 어떠한 환란과 핍박,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움으로 기피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에는 또 다른 시험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지는데 이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변절자도 생겨나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도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라서, 데살로니가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천국에 갈 믿음을 가졌고 면류관 또한 받을 상태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둥은 그 건물을 받히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인과 새 예루살렘(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보배로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사인, 예수님의 새 이름인 만왕의 왕의 사인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보낸 편지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공적 편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모아 놓은 곳입니다. 즉 하늘나라 가기 위한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죄악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불러내셔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들 중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속적인 기대감을 부추기고 마치 무속 신앙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소망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1-7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기하급수적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책과 직분이 생겨나고 교회의 여러가지 일들을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거나 구원 얻기 위하여 영적 지도에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교회)라고 해서 성도 상호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구제, 봉사, 전도하는 일에 목회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력 봉사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의 봉사직제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가 똑같은 처리권을 가졌다고 장로교 헌법에 되어있지만 단 하나, 목사에게는 강도(講道)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도 목사에게는 양떼 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중직으로 세움 받은 장로라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목사로부터 영적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회 제직들 사이에 신학적 신앙노선이 일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영적 체질 신앙이 일치하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협력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급속도로 부흥,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하늘 문을 열어 놓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oa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고상사(한단교,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고상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교,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유년부와 고등부 교육전도사 청빙

Rowland Heights, CA 에 소재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가 유년부와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청빙합니다.

2세 자녀들에게 영어로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교육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 1)지원 자격

정규 신학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영어 설교 가능자

#### 2)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 간증

제출기한 : 2014. 6. 21(토)

#### 3)문의 및 접수

전화 : (626) 810-3455

이메일 : beautifulchurch@hotmail.com

### 아름다운 교회 청빙 위원회

### 영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요즘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어로서 “귀족은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은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서구 세계의 굳건한 지도력의 형성과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시대 이후 왕과 귀족들이 보인 투철한 도덕성과 숭수수법이 이러한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고위층의 봉사(봉사)와 헌신의 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양, 도로는 귀족의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종 있었고, 전쟁이 나면 귀족이 먼저 나아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이 유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형식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귀족층의 희생으로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도네이션의 나라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USC에 들렀습니다. 새 건물 게일르 센터(Galen Center)가 졸업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은행가로 성공한 사람인 루이스 게일르 부부는 2002년 USC 쿼터백 카슨 팔머가 하이즈만 트로피를 타면서 1억 달러를 기증하였습니다. 이후에 2억 5천만 달러와 1억 5천만 달러를 기증하면서 학교에 총 5억 달러를 기증하였습니다. 학교는 그의 이름으로 100년 숙원사업인 실내 체육관을 지

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초등학교 동창 양승진 단원과 교사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앞에 살던, 나에게 짓궂게 장난치던 그리운 친구 승진이의 슬픈 소식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구명대를 내주고 학생들을 구하다가 죽어간 많은 교사나 친구의 삶이 귀하기만 합니다. 이들의 책임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를 상류층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가 교회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한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귀족이나 특권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행동한다든가,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한다든가,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종 노릇(servanthood)은 주님의 주권 의식(Lordship)과 주님과 친밀함(familiarity)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영성(spirituality)의 핵심이며 우리가 추구하고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부분입니다.

### 회의(懷疑)가 없었던 회의(會義)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지난 주에는 여러모로 뜻깊은 총회를 다녀왔다. 일년 임기의 총회장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총회장에게 넘겨주는 시간이었고, 총회적으로는 지난 몇 년 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지 않는 난제가 산적했던 총회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어져, 오신 모든 분들이 기쁜 얼굴로 떠났다.

이번 총회를 다녀오면서 무척 고무적이었던 것은 종전의 회의 일색이었던 총회의 순서가 다양해지고 무척 은혜로워졌다는 사실이다. 총회는 보통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삼박사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종전의 경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줄곧 회의만 하다시피 하다 돌아오곤 했다. 그래서 더러는 회의(會義)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 회의(懷疑)가 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젊은 목회자들 중에는 그것이 못마땅해 한 나절이라도 회의를 좀 쉬면서 휴식과 교제를 나누며 어떠냐고 제안을 하면 어른들은 총회가 놀러 온 건 줄 아느냐고 꾸짖어 머쓱해 지곤 하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37차 총회를 우리가 주최하면서 과감히 일정을 조정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간단히 회의를 마친 후 관광버스 몇 대를 세 내어

폴케티 뮤지엄으로 단체 관람을 갔다.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좋아하셨다. 그러자 이번 토론토에서 열린 38차 총회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갔다. 역시나 총회 기간 중 한 날을 정해 토론토에서 1시간 20분 가량 떨어진 나이가가라 폭포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소풍을 갔는데 모두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나이가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목회를 하며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씻어내는 모습이였다.

그 외에도 고무적인 일들이 많았다. 작년 총회를 주최하면서 총회 준비위원회에서는 2세 목회자들의 참가비를 반으로 할인해 주기 시작했는데 금년 총회에는 그뿐 아니라 선

교사님들의 참가비도 반으로 할인해 주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총회에 참석을 했다. 매년 총회 기간 중에 있는 선교대회의 포맷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은 간단한 인사만 하던 것을 금년에는 아예 선교사님들이 주강사가 되어 선교의 밤을 진행했다. 선교지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간증들을 통해 큰 도전이 되었다.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집 물건을 늘 도둑질 해 가던 한 청년을 인내로 기도하며 키워서 마침내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시킨 얘기를 나누며 감동을 주셨고, 한 젊은 선교사님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일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열매를 거두고 있는 소식들을 전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른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회의를 해도 별로 지루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오히려 더 생산적인 결과가 있어서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로서는 총회 순서 자체도 좋았지만 작년에 우리가 뿌려놓은 작은 변화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남몰래 흐뭇한 시간이기도 했다.

### 받는 기쁨,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인신교회

사람은 ‘얼마나 받았느냐’는 것보다는 ‘얼마나 주고 갔느냐’로 그 사람의 진가를 말하게 된다. 좋은 것을 많이 나누어 주고 가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받기만 하고 무리하게 내 것으로 만들다 가는 사람은 욕심쟁이로 남는다.

받는 기쁨 :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생명의 씨앗을 받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으며 자라다가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때부터는 받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부모, 형제, 친지의 도움은 물론이고 생존에 필요한 자연의 도움을 계속 받으며 산다. 그 많은 것 중에 유난히 기억되는 일은 설날에 어른들에게서 받은 세뱃돈 봉투를 들고 경중경중 뛰면서 좋아했던 일, 처음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성취감, 작으나마 내 집을 마련하고 그 곳으로 이사하던 날 밤, 마치 천당에 간 기분이었다. 미국에 오기 위해 여권이나 비자를 받던 날의 흥분, 그것뿐 아니라 나의 분신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등. 지금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나만의 본성인가!

나누는 기쁨 : 흘러 내려오는 샘물도 그냥 담아 두면 썩는다. 그러나 계속 퍼내면 그곳은 언제나 생수가 끊이지 않는다. 성지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헬몬산에

서 흐르는 물을 받으며 또 한편으로는 흘러 보내 언제나 깨끗한 물에 많은 고기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나 다른 호수는 갈릴리에서 받은 물을 간직하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아 그 물은 진한 소금물로 변해 어떤 고기도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죽은 호수(사해)라고 부른다. 그 원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가능한 내가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누면 존경받고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든다. 그러나 내 것으로만 만들려는 사람에게는 덕이 없어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망간다.

벌써 몇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라면은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다. 작은 부피에 익혀 먹기 쉽고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식품이다. 그런 라면을 개발한 본인은 특

허를 내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특허를 내고 독점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 이유는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봉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는 기쁨 : 내가 아는 김OO 씨는 정말 주기를 좋아한다. 없으면 꾸어서라도 줄 분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힘들어 하는 부부를 초청해서 푸짐하게 자주 대접한다. 주위에서 운전하기 힘들어하는 노부부를 데리고 같이 관광을 떠나기도 한다. 경치좋은 곳으로 자기의 차(RV)로 모시고 스스로 운전해서 며칠이고 달린다. 잘 때는 손님들은 좋은 자리로 모시고 자기 부부는 차의 좁은 복도에서 꾸고고 잔다. 미리 많은 식재료를 냉장고에 꽉 채워 놓고 그 차 안에서 요리를 같이 하며 즐겁게 먹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몬트를 최대한 이용해서 남 돕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는 분이다. 그 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부끄럽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섬김이요 배려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다. 더 받으려는 나의 본성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없을까 되돌아본다.

## 센트럴 침례 신학대학원

### LA 분교

## 한국부 학생 모집

www.cbts.edu

센트럴 침례 신학대학원(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1901년에 개교하였으며 1962년에 ATS인증을 받았고, 1979년에 HLC정회원이 된 전통있는 신학대학원이며 미셔널 처치 중심적인 신학훈련으로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학위과정 및 수업료 (1학기)**

- 목회학박사(D.Min.) \$1,200 (학점당 \$200, 졸업학점 30)
- 목회신학석사(M.Div.) \$1,350 (학점당 \$150, 졸업학점 75)
- 디플로마 \$1,800 (학점당 \$150, 졸업학점 48,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가능)

**전과정 1-20 발급 (졸업 후 OPT 가능)**  
박사 3년, 석사 4년, 디플로마 2년

**수업방식:** 한국어 혹은 영어(통역제공)

- \*4-5일 집중수업(주중 4-5일)
- \*4-5주 집중수업(매주 하루)
- \*4-5주 집중수업(매주 이틀 3-5시간)
- \*15주 온라인 수업

미국 각 지역 분교에서 강의가 실시됨

문의처  
서보천 목사: 310.951.3153 (LA 분교 담임)  
본교 한국부 입학처: 913.667.5700 (ext. 120)  
이메일: koreanstudies@cbts.edu

T. 913.667.5700 F. 913.371.8110  
6601 Monticello Road., Shawnee, KS 66226

## www.ptsa.edu

### '고엘(기업 무를자)' 포럼

"이번 포럼을 통해 현대교회와 선교현장에서 자기화생적인 복음사역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업 무를기' 개념과 제도를 이해하고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일정 : 2014년 6월 9일(월) ~ 6월 12일(목), 오후 1:30~5:00  
장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실  
후원 : 아름다운교회, 충현선교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첫째날: 6월 9일(월)	둘째날: 6월 10일(화)	셋째날: 6월 11일(수)	넷째날: 6월 12일(목)
환영 및 서론 : 고승희 목사, 백신종 목사	4 역사서의 고엘, 도피성, 그리고 계대결혼 : 김지찬 교수 (충신대)	7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나타난 구약의 고엘 개념 : 이상명 총장 (미주장신대)	10 고엘 포럼 정리 및 총평 : 김형규 목사 (헬로교회)
1 명예 관한 성경적 이해 :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5 뜻기에 나타난 고엘의 선교학적 의미 : 백신종 교수 (Trinity College)	8 기업을 무를 자의 공동체적 교회론 : 나카이 신조에 나타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를 중심으로 : 조진성 교수 (미주장신대)	11 패럴토의 : 백신종 목사 (사회)
2 요셉의 토지 제도화 해년법의 사회정의 :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6 선지서에 나타난 기업무를기의 신학 : 김수정 교수 (미주장신대)	9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고엘사상 : 이필환 교수 (이필환연구원)	12 질의응답 : 정진명 목사 (정리)
3 오경에 나타난 기업 무를기의 이해 : 정진명 목사 (TEDS)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김인식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office@ptsa.edu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페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까지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다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집안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소변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소변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었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취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든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살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갔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 건강과 성경 이야기 7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음식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건강법은 디톡스라고도 합니다. 즉 몸을 해독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서도 3일동안은 산모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3일을 굶어야 하는데 그 때 아기가 산모의 몸속에 있을 동안에 먹었던 자신의 태변을 이 3일동안에 변으로써 다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해독을 하고나서 모유를 섭취하면 건강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금식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40일을 금식한 분들이 예수님을 빼고 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두 번 하였고요.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한 번 하였었습니다. 모세의 금식은 신명기 9장 9절과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두 번에 걸쳐서 시내산 즉 헐렘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한 내용이 나오니다. 신명기 9장 9절은 첫번째 금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다 아시는 내용인 금 송아지 사건 이후로 깨어진 돌판들 대신에 또 다시 새로운 돌판들에 언약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내용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의 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갈멜산 대결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자들의 배후에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자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여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죽기를 하나님께 청하여 누워서 자

는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렘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분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후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때 먹은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또다시 먹지 않고 사십일 동안에 호렘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지요.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후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해독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찾아보았는데 기적의 영양제 M3가 이런 작용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드시는 모든 분들이 3일 이내에 아주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M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음식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땅에의 쭼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편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의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게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기농 영양제 M3, 효과가 아주 빠른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랄)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룬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एम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Power Mill)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플로리다	954.985.392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여성교역자 영성 고취 위해”

#### 미주여교역자회 창립

남가주 지역 여성 교역자들의 기도 모임이 “미주여교역자회”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한다. 하나님의성회 한국 총회 서남부지방회에 속한 여성 교역자들이 미국과 한국이 처한 영적 위기에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하던 비공식 모임이 이 단체의 전신이다. 기도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성 교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의미있는 일을 해 보자”는 데에 뜻을 모으게 됐다.

초대회장은 이 교단 서남부지방회장을 역임한 박경희 목사(남가주 백향목교회)다. 그는 “여성 교역자들이 더욱 깊은 소명감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영적 자존감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권익을 향상시키고 대사회적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 이 단체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백향목교회를 개척해 15년째 담임하고 있으며, 70여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회장도 2년간 감당할 정도로 교단 내에서 신임이 높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동료 여성 교역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박 목사와 6명의 동료들은 지난 6개월간 매달 모여 기도하며 이 단체 창립을 준비해 왔다.

현재 창립 멤버들은 하나님의성회 소속 여성 교역자들이지만 교단과 교과를 초월하기 위해 최근 박 목사가



미주여교역자회장 박경희 목사

폴리신학교에서 학업 중인 여성 교역자들과 미팅을 하기도 했다. 박경희 목사는 “사업이나 행사 위주가 아니라, 여성 교역자들의 영성 고취와 영적 치유에 더욱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창립을 기념해 “성경적 여성 리더십”이란 주제 아래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면서 한영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인 한영훈 목사다. 장소는 행복한교회(1716 S. Brea Canyon Cutoff Rd. Walnut CA 91789)다.

이 단체에 관한 문의는 박경희 목사(818-822-5533)에게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 UMC, 동성애 문제로 분립 위기 직면

### 성경적 결혼에 대한 찬반 “타협점 없다”

미국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내 동성애 이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공식적인 ‘분립’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관할권을 대표하여 30번 이상의 연례 컨퍼런스를 치른 80명의 감리교 성직자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매우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다”면서 교단을 전통파와 진보파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교회가 약속, 단체적 규율, 성경의 영성, 제자도, 목회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 임명과 관련된 논쟁이 교회 내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이해한 복음에 대해 신실하고자 할 때, 전통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우리가 나뉘게 된 보다 깊은 원인들이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차이점들은 결혼과 인간의 성에 대한 주제까지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감리교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결혼을 믿는(지지하는) 이들과, 동성애자 성직자와 동성결혼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는 이들 사이에 어떤 타협점이나 절충안도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도나 ‘불일치에 대한 인정’ 등의 말이 위안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말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다. 양쪽 모두 ‘불일치에 대한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감리교 지도자들 가운데 “교단 분리” 요구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위스콘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Journal Sentinel>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합을 위해 일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정직하게 씨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불일치가, 단순히 주의를 산만하



게 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했다. 트리니티연합감리교회의 래리 베어드(Larry Baird) 목사는 크리스천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의 긴장이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다르고 있다. 우리는 깊은 불일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아름다운 찬양으로 울타리선교회 15주년 기념

### 대표 나주옥 목사 “주님 은혜 감사”

LA 다운타운에서 홀리스 구제사역을 펼치고 있는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찬양으로 준비한 감사예배를 1일 오후 5시에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드렸다.

감사예배는 사회 나하나 선교사(울타리선교회), 대표기도 명원식 장로(울타리선교회 명예이사장), 설교 이상훈 목사(성광장로교회), 축사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 김병용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 울타리선교회 사역 보고 김성일 장로(울타리선교회 이사장), 현금기도 최영일 장로(울타리선교회 협동장로), 광고와 감사의 말씀 나주옥 목사, 축도 흥기 목사(울타리선교회 협동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히 환영의 찬양, 헌신의 찬양, 고백의 찬양, 결단의 찬양, 축복의 찬양, 격려의 찬양 등 각각의 테마를 갖고 포이에마 여성합창단, 이희우, 필그림 남성합창단, Park Trio, Lady Singers, 남가주장로성가중창단이 참여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사우스베이목사회 김병용 목사는 축사에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닫혀

진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나라라 믿는다”며 “울타리선교회는 15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헌신해 왔다. 앞으로 기도와 협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나주옥 목사는 “그동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았지만 무릎으로 기도해 주면서 도와 주신 분들이 많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우리 선교회는 15년을 맞아 무엇을 위해 구하기보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한다.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타리선교회는 교회 사역 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LA 다운타운 6가와 타운이 만나는 길거리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크리스피크림 도넛을 하루 평균 250여명에게 나눠주고, 토요일에는 사발면과 도넛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주3일은 드립센터, 에코 하우스웨어, 자연나라, 농심, 해태, 팔도 등 식품회에서 기증받은 식품을 저소득층이나 작은 교회 및 단체에 나눠주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미국 성인 5명 중 2명, “동성애자로 태어난다” 믿어

28일 발표된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42%는 동성애 성향이 태내에서 결정된다고 믿는 반면, 37%는 양육과 환경의 결과로 보고 있다.

갤럽이 처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1977년, 동성애 성향을 태생적인 것으로 본 비율은 13%에 불과했으며 양육과 환경에 기인한다고 답한 비율은 56%였다. 2001년에는 동성애 성향이 출생 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인구학적 차이도 존재했다. 동성애를 유전적 특질로 본 집단에는 백인, 여성, 자유주의자, 민주당원, 고소득자, 대학 졸업자, 교회에 거의 혹은 전혀 출석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저스틴 매카시(Justin McCarthy)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한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를 환경과 양육의 결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매카시는 미국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양분되는 이유를 “과학적 공동체로부터의 조언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개인이 이성애자, 양성애자, 게이, 혹은 레즈비언 성향을 갖게 되는 정확한 이유에 관해 과학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국심리학회의(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진술을 예로 들었다.

2월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의 심리학자 마이클 베일리(Michael Bailey)는 특정 유전적 소인을 지닌 남성이 동성애자

가 될 확률이 40%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모든 동성애자 남성이 이 소인을 지니거나, 이 소인을 지닌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한 다른 환경적 요인들도 관련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적 성향과 관계된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젠가 태아의 성적 취향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으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에 이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1,02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표본의 오차범위는 ±4 퍼센트 포인트다.

주디 한 기자

## 새 영역본 성경 MEV 출판 “KJV의 최신 버전”

새로운 버전의 성경 영어번역본, Modern English Version(이하 MEV)이 출판됐다. 이 영어성경에 대해 출판사 측은 “최근 30년 동안 출판된 성경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버전의 KJV”라고 밝혔다.

카리스마하우스의 부사장인 테시 드보어(Tessie DeVore)는 성경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MEV는 성경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 원래의 메시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며 “이로 인해 MEV

버전은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카리스마 측의 디렉터인 제이슨 맥물런(Jason McMullen)은 지금은 새로운 번역본이 필요한 시대이며, 그래서 이 번역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목회자 사모

PCA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www.inlandchurch.org

# 힐링 기쁨프

회복된 사모  
행복한 목회

## 2014.7.13(주일) - 15(화) 2박 3일

- 참가대상: 남가주에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 30명
- 주 제: 회복된 사모, 행복한 목회
- 강 사: 황순원 사모 (CMF 가정 선교원 원장)
- 참가비: 무료 (교통편을 제외한 숙식 및 제반 프로그램 제공)
- 참가신청: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FAX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www.inlandchurch.org](http://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문성진 목사 (714-876-8812, [doorgori@inlandchurch.org](mailto:doorgori@inlandchurch.org))
- 주 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622-2324/Fax: 909-622-1480)

## PASTOR'S WIFE HEALING CAMP



152년 흑인교회

유서 깊은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 드려

애틀랜타 펠콘스 구장 건설 위해... 당분간 모어하우스칼리지에서 예배



프랜드십밴티스트처치가 유서 깊은 현재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152년의 역사를 가진 흑인교회가 유서 깊은 현재의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미첼 스트리트(Mitchell street)에 위치한 프랜드십밴티스트처치는 지난 해, 애틀랜타 펠콘스의 새로운 구장 건설을 위해 건물과 부지를 1,950만 불에 팔기로 최종 결정했다.

예배를 인도한 윌리엄 가이 목사는 "누군가는 오래 전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라고 교회 건물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건물 이상이다. 교회는 바로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회중들이 인근 조지아 돔이나 풋볼 경기 인파를 피해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등 펠콘스와 연계된 교회 역사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변화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회가 바인시티커뮤니티 내에 새 교회당을 지을 때까지, 프랜드십은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근처 마운트버논밴티스트처치 역시 새 구장 프로젝트를 위해 1,450만 불에 교회를 팔기로 합의했으며, 3월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인근 카버칼리지에서 임시 예배를 갖고 있다.

마운트버논이 떠난 후 곧바로 교회 건물은 철거됐으며 이날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프랜드십처치 바로 옆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슬퍼했지만, 현재의 예배당에서 갖는 마지막 예배가 '위로 파티'는 아니라면서, 윌리엄 가이 목사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한다"고 성도들을 다독였다.

앤더슨 김 기자

SBC 7년 연속 교세 감소해

주일 평균 출석인원 580만 명

프랭크 페이지 총재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 회복해야"



설교하는 프랭크 페이지 SBC 총재(좌).

남침례교회(SBC) 교인수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에서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에 따르면, SBC의 총 교인수는 지난해 말 1,570만 명으로 2012년 1,590만 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톱 S. 레이너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 대표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전도의 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낀다. 우리 교회들 안에 지상명령을 위한 열정이 새롭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길 계속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일 평균 예배 참석자들은 580만 명이었는데, 이는 2012년 6백만 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더군다나, 교단 내 침례 수도 지난 2년간 평균 4천 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BC 내에서 침례를 복음 사역을 위한 개인의 헌신을 측정하는 척도로 여기는 만큼 침례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교회 숫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인데, 미국 내에서 2012년 46,034개 교회에서 2013년 46,125개로 늘었다.

프랭크 S. 페이지 총재는 약간의 (교회 수) 증가에도 감사를 나타내면서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부족했음을 인식했다.

밴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페이지 총재는 "아모스서의 경고는 경계태세를 낮추

고, 불침번을 쉬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 줄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부르심이다. 우리가 선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면서 아모스의 경고가 지금의 교회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웠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커다란 필요와 동시에 커다란 기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길 바란다. 주여, 시온에서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암 6:1)"라고 덧붙였다.

이 교단의 교회개혁 디렉터인 조슈아 헛거는 매년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이 성도 수의 감소와 침례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남침례교회 개혁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교회 재활성화를 통해 '죽어가는 회중'을 되살려 놓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회중이 감소하는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 회중을 다시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교회들은 문화에서 단절됐거나 성경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다. 몇몇 교회들은 목회자를 바꾸거나 교회 문화를 바꿈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새로운 교회들은 완전히 문을 닫은 교회 건물과 자산, 사람들을 이어 받을 수 있다"고 헛거는 제안했다.

신디 김 기자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선교회,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김해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김종호 담임목사, 에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강지연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박석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나눔 장로교회**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재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구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별강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슬롭)  
오후 12:00 (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뉴저지 할렐루야교회와 예수드림교회 '아름다운 통합'

'할렐루야 예수드림교회' 로 새롭게...선교 파송 정철웅 목사



할렐루야교회와 예수드림교회가 통합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드림교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통합예배에 참석한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저지의 할렐루야교회(담임 정철웅 목사)와 예수드림교회(담임 김종운 목사)가 교회를 통합하고 '할렐루야 예수드림교회' 로 새롭게 출발한다. 할렐루야 예수드림교회는 25일 오후 5시 '통합 감사예배 및 순회 사역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고 양 교회의 통합을 정식으로 알렸다.

양 교회가 통합됨에 따라 정철웅 목사는 알타이선교회 선교사로 파송돼 아시아의 알타이문화권 선교현장의 많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곳곳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분열과 갈등이 잦은 지금 시대에 할렐루야교회와 예수드림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은 타 교회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양 교회의 통합은 불과 3주 전 정철웅 목사와 김종운 목사가 만나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이날 예배는 김종운 목사의 사회로 주선종 목사(클로스터교회) 기도, 이병준 목사(뉴저지목사회장) 설교, 심호섭 선교사(알타이선교회 미주대표) 협력선교회 소개 및 협력선교사 영입선언, 김종운 목사 파송패 전달, 최경순 집사 축가, 김종덕 목사(뉴욕실로암장로교회) 축사, 강원호 목사(뉴저지말말선교단장) 권면, 정철웅 목사 답사,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 헌금기도, 고재철 목사(한성교회 원로)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정철웅 목사는 답사에서 "21년 이민목회의 부르심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내의 치료와 함께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겠다"면서 "지금 국내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청년과 대학생은 3%만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다. 순회 선교사는 절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함께 연합해야 가능한 일이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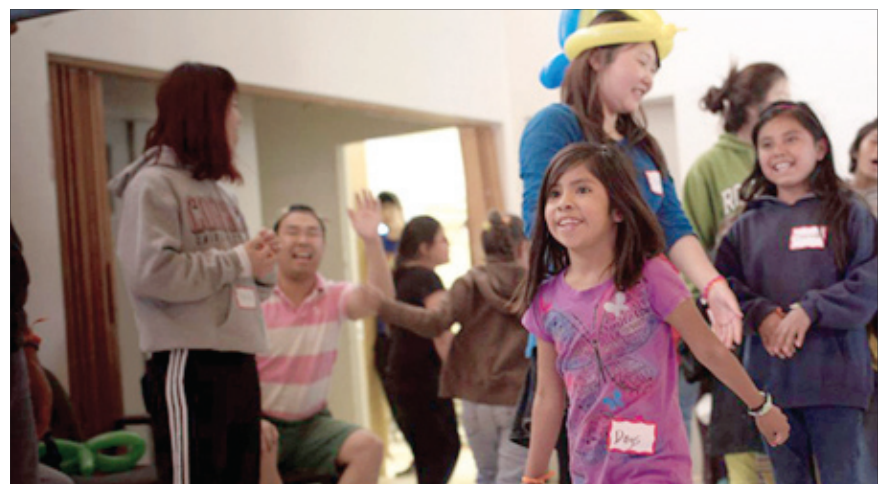
김종운 목사는 소감을 통해 "개척 전에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즐겁다. 이 개척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생명력이 있다. 정 목사님과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면서 "이름에 '윤' 자는 진실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진실하고 싶었던 것이 어렵적 마음의 소원이었다. 지금도 목회를 진실하게 하고 싶다.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병준 목사는 '사마리아와 땅끝'(행1:8)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두 교회의 통합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진정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첫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둘째 말소에 능통했고, 셋째, 모두 전도의 사람이 되었다. 통합된 교회가 이러한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덕 목사는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과 물고기는 각자 다른 물질이었지만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면서 "통합된 두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되어 5천 명을 먹인 예수님의 축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대원 기자

## 꿈이 없는 아이들의 형, 누나 되고 싶어요!



피닉스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 미션 트리프 중 애프터 스쿨 어린이 사역.

노크로스한인교회 진세관 담임목사를 포함한 18명의 청년들이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임태일 선교사가 사역하는 피닉스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 미션트리프를 다녀왔다. 지난 4월, 온 교회가 함께 한 가리지 세일 등으로 마련한 선교헌금을 현재 건축 중인 예배당 건물을 위해 전달하고, 기도처소를 쌓는 일과 어린이들을 위한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및 현지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다.

청년들은 하나 같이 "미국이지만 미국이 아닌 곳"이라고 놀리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 실업 등으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도 꿈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청년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나누고, 그들의 꿈을 물어봤지만 꿈을 꾸는 것조차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도 길을 열어주거나 보여주지 않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돌보려는 의지가 없다. 그 지역 고등학교 전체에서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1-2명에 불과하며, 십대 임신과 마약 중독도 심각한 상황이다. 교회 내에서조차 중독 문제를 끊지 못해 자신을 정죄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선교에서 돌아온 뒤

호피 선교를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힌 진세관 목사는 "호피 인디언보다 호피 인디언의 역사와 주요 인물, 미국의 정책,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박하신 임태일 선교사님께서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라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한인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 자녀 모두 지역의 공립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임태일 선교사는 감리교 목사지만, 이 지역 선교를 중단한 침례교단 쪽에서 사용하는 예배당을 이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110년 된 옛 예배당은 안전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으며, 노크로스한인교회 청년들은 허문 건물의 돌을 다시 얹어 새 예배당 옆에 기도처소를 쌓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노크로스한인교회 청년들은 앞으로 꾸준히 호피 인디언 선교를 돕는 것은 물론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의 친구가 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교제해 나가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태일 선교사의 자녀들부터 애프터타로 초정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며, 그 범위를 점차 지역 청소년들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현희 기자



올 여름 단기선교 캐나다 원주민 마을로 가자!

사랑의 군대 시애틀 워싱턴 지역 원주민 단기 선교사 모집



'사랑의 군대'의 최근 원주민 단기 선교 사진.

매년 7월이 되면 캐나다 밴쿠버는 선교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 북미주 한인교회들이 팔을 걷어 붙여 힘을 모으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등록 초교과 비영리 선교단체인 사랑의 군대(LOVECORPS)는 오는 7월 21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와 BC 주 북부 원주민 마을에서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한다. 사랑의 군대 여름 단기 선교는 매년 원주민 교회에서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사랑의 군대는 올해 선교 20년을 맞아 시애틀을 비롯해 워싱턴 주 각 교회와 청년들이 참여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의 부흥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선교에 앞서 콜롬비아 바이블 컬리지에서 2박 3일간 훈련 캠프로 원주민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운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북미 개척자들로 인한 그들의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 1492년 콜럼버스가 북미에 도착했을 당시 약 4천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있었다. 그러나 1820년대에는 인구가 불과 20만 명으로 줄었다.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정부는 탈 원주민 정책으로 거주지를 재배치하고 원주민 보호 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2500여 곳으로 옮겨졌으며, 원주민들은 자녀와도 이별했다. 1874년 9세 부터 15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은 캐나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기숙학교에 들어가야 했다. 기숙학교는 영국정교회·가톨릭·개신교·연합교회 등이 운영했으며, 원주민 아

이들은 신부와 수녀 목사로부터 서구의 문화와 교육, 언어를 배웠다. 아이들은 문맹인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문화·언어·정체성을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또한 성적 학대와 가혹행위가 이어져 원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15만 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기숙학교를 거쳤으며, 70%가 넘는 어린아이들이 결핵·스페인독감·영양실조·화재·역사 등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30%가 안 되는 나머지 학생들은 언어적·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한 기억을 안고 살고 있으며, 결국 1996년 마지막 원주민 기숙학교가 폐교됐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원주민들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인' 선교사들이다. 현재 캐나다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20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홍성득(66) 목사는 18년 전 원주민 선교를 위해 '사랑의 군대(LOVECORPS)'를 창설해 매년 여름 2주간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몰려온 대학생 300여명을 원주민 선교를 위해 파송해 왔다. 1995년 원주민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홍성득 목사는 '사랑의 군대'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사랑의 군대'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단기 선교 참가 비용은 700달러이며 지원은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문의: 604-817-5683, 604-537-5824 info@lovecorps.com www.lovecorps.com 김브라이언 기자

“뉴욕 할렐루야 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대회의 성공적 개최 다짐, 최종 점검



할렐루야 대회 3차 준비기도회가 2일 만나교회에서 열렸다.

할렐루야 2014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뉴요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마지막 준비기도회인 3차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은 마지막 준비기도회만큼 뉴욕 사모회 회원들과 장로연합회 회원들도 참여해 함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한편 대회 준비사항들을 최종 점검했다. 기도회는 김희복 목사(순서진행위원장)의 사회로 황영진 목사(선교분과위원장) 기도, 이수원 장로(현금내내위원) 성경봉독, 이풍삼 목사(준비위원장) 설교, 안창의 목사(고문) 축도, 특별통성기도-김영철 목사(감사), 양민석 목사, 권캐더린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시편131:1-3)라는 설교에서 "뉴욕이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살아야 한다"면서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계기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예배 중 특별통성기도 시간

을 갖고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동포 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2014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등을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 특별히 대회와 관련해 강사들과 준비위원들을 위해, 날씨와 안전사고 방지 및 후원을 위해 기도했다. 준비위원장 이풍삼 목사는 "현재 대회를 위한 포스터 부착과 미디어 홍보 등 제반 준비사항은 마무리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인원 동원"이라고 말했다. 전도분과위원장 허준준 목사는 공영주차장 앞과 한인마켓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두홍보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할렐루야 2014 대뉴욕복음화대회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할렐루야 어린이복음화대회가 동시에 진행되며 할렐루야 대회 이후 목회자 세미나는 16일 오전 9시 금강산 식당에서 진행된다. 또 할렐루야 청소년복음화대회는 9월 5일-6일까지 뉴욕 장로교회(담임 이승한 목사)에서 열린다. 김대원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30, 평일인양예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한어장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6:00 분당, 수요일 저녁 8:00 분당, 금요일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게시목), 금요일 오후 7시(게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신원규 담임목사**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물)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인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지사론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넘어서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3: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무마시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목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회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유기물질로써 미FDA 등록 연구소에서 행해진 AOAC 976.26GC, EPA 200.7, CDFA 1991 PUB, pH테스트, 유기염소의 살충제 & PCBs (안전테스트), 17 중금속, 영양 함유물과 라벨링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안전함을 확인 증명 받았으며, 그 이후 2013년 8월 1 일에 미FDA에 일반의약품 [ NDC (OTC DRUG) ]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제조회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90캡슐 / 한 달분 / 한 병  
Made in USA

미라팜-22의 일반의약품 등록 합법성은 미국 FDA의 아래 사이트를 가셔서 상표명이나 NDC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ndc/dsp\\_searchresult.cfm](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ndc/dsp_searchresult.cfm)



미국 FDA NDC 일반의약품 등록 인증서 (FDA NDC REGISTRATION CERTIFICATE) <아시아 본부 발행>



기능성 식품 안정성 테스트 확인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IRMATION FOR TEST PARAMETERS)



FDA 확인해 보세요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로 검색

###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 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UNAPPROVED DRUG OTHER란 Marketing Category Name은 승인 안 된 의약품이란 뜻이 아니라 FDA에 이미 등재된 약재 목록에는 없는 신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다른(OTHER) 의약품이란 의미이며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져 FDA에 등록된 첨단 의약품입니다.

### 가정의 달 효도 세일!

미라팜 3병 구입시  
HQ구연산 프로모션 중 1가지 선택  
소비자 가격 \$400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프로모션 B**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 \$380 \$100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 후 5일 - 11/5/2013    복용 후 25일 - 11/25/2013    복용 후 77일 - 1/1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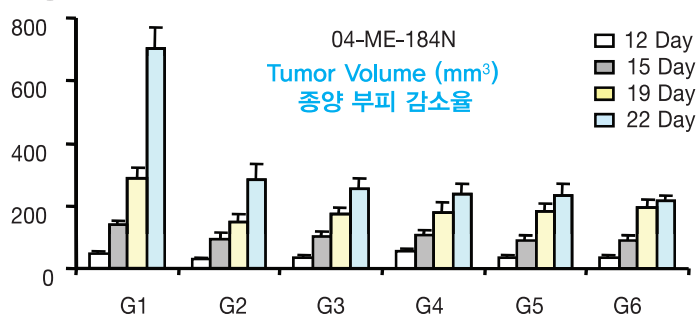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를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위로·회복 기도회에 참석

##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 주관

###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1일 저녁 7시 명성교회(담임 김삼환)에서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참사를 당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아픔이 증언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 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분열을 거듭해 왔던 것을 회개하자"며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참회와 일치연합운동에 동참하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서 먼저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성경 말씀처럼 그동안 한국교회가 팽목항과 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들과 가족들,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본인과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안전시스템과 해상재난 대비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과거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사회를 어지럽혀 왔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이어져 온 잘못된 적폐를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 분야를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했다.

특히 유병언 씨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가 범망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과거에 이미 없어야 할 기업이 회생절차를 약속

해 되살아나서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다가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가져왔는데 더 이상 이런 것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도 팽목항에 계신 그분들의 헌신과 힘을 합해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예배 전 박종순 목사(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와 한영훈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함께 여는 말씀을 전했으며, 김삼환 목사(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위원장)의 인도로 열린 예배에서는 장종현 목사(예장백석)가 대표기도를 한 후 장차남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와 김장환 목사(세계침례교연맹 전 회장)가 함께 설교했다.

축도는 립인식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와 공동, 증경총회장들 전체가 함께 했다. 박기성 기자

# 기독교천사운동연합

## “사랑나누리 폐차마을”

### 목회자 유가족 돕기

####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협력 계획 수립

목회자 유가족들의 생활지원을 비롯해 미자립·은퇴 목회자들의 장례 서비스로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기독교천사운동연합(사무총장 김수배, 이하 기천연)이 최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에 힘을 보태고자 '사랑나누리 폐차마을'이란 이름의 폐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나누리 폐차마을'은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국내 어느 곳에도 지정된 시간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폐차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며, 폐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목회자 유가족 돕기 및 은퇴목회자 생계비를 후원하는 사역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천연은 이를 위해 국내 폐차업체의 선두주자인 ㈜수원폐차산업, 한솔폐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 소재 폐차장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폐차 업무를 도울 예정이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독교인들마다 폐차의 편의성도 제공받고 목회자 유가족 돕기에도 동참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실 지금도 목회현장에서는 갑작스런 일련의 사고나 질환으로 소천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목회자 유가족들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맞닥뜨린 현실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 돕는 기관도 적을 뿐더러 관심도 미온적이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들의 유가족들 역시 생활 형편은 더 열악하고 게다가 국내 연고가 없거나 오랫동안 해외에서 머물러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기천연 김수배 사무총장은 "이 사역은 단순히 목회자의 유가족들에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회에 대

한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지체들이 함께 인식하는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 없이 주님의 사역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천연은 지난해에도 캄보디아 중부 캄퐁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방효원 선교사(한국 인터서브)와 김윤숙 사모의 상황을 접하고 남겨진 두 자녀를 위해 선교사 유자녀 돕기 '사랑의 콘서트'를 열기도 했으며, 금년에는 이집트에서의 폭탄 테러 때 몸으로 파편을 막아 성도들을 구하고 의로운 죽음을 택한 고 김진규 목사의 아내와 내살 박이 딸을 돕기 위해 기금 조성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다.

'사랑나누리 폐차마을' 폐차 신청은 폐차마을에 전화하면 되고 차종, 연식, 차량 상태와 관계 없이 폐차의사를 밝히면 원하는 날짜에 무료 견인차가 출동하고 약간의 벌금이 있다 해도 말소대행업무까지 진행한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폐차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사랑나누리폐차마을 어플을 설치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폐차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주관 기관인 기독교천사운동연합은 2011년에 설립된 단체로 목사, 크리스찬 음악인, 찬양사역자, 대학교수, 법조인 등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 목회자 유가족들을 돕는 다양한 사역(목회자 유가족 및 은퇴목회자 생활자금 지원, 장학기금 조성, 장례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교회와 기관들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한국 070-4140-8833  
010-8411-3356  
박기성 기자

# 한인 2세 고등학교 이후 80.3% 교회 떠나...대안 있는 지도자 절실

31일 오전 7시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진행된 제8회 살롬나비 토마토 시민강좌 3강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오상철 교수(엘드디아스포라포럼 대표, 대전신대 교수)가 발제했다. 오상철 교수는 2011-12 북미주 전국한인교회 백서를 중심으로 발제하며 2세 청소년 중 80.3%가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이탈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기는 '고등학교 이후 이민교회를 떠나는'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54.2%를 차지하며 '대학 재학 기간 동안'이란 응답 비율이 26.1% 이다"며 "고등학교 이후와 대학 재학기간 사이에 이민교회를 떠나는다는 응답 비율이 80.3%에 다

르기에 2세를 위한 민족적 신앙 전락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3.1%)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답이 비슷한 응답 비율 이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희망/비전의 결여'(40.9%)였다고 오 교수는 말했다.

그는 "2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응답은 Korean-American이 75.6%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며 "그런 이들이 교회를 탈출한다면 민족적 정체성과 가치관은 어디에서 확립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오 교수는 또 "2세들은 문화와 언어의 간극이 1세와 2세 사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2세들은 한국 문화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

는 자세, 강한 명령조의 태도, 민족 우월주의 등이 1세 목회자들이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와 대안이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한국교회와 지구촌 디아스포라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야 기자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 남가주 노회 야유 예배

한국 대신 총회 남가주 노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야유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노회원들과 미주 대한 신학교 동문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남가주 노회 노회장 강부웅 목사

일시: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4730 Crystal Springs dr. Los Angeles (Griffith Park)

문의 전화: 최제이콧 목사 (남가주 노회 면려부장) 310/598-0746

김영구 목사 (남가주 노회 서기) 310/404-6219





# 위대한 한국인.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 인가? “WHY ME MY GOD”

“나는... 나의 일생의 연구로부터 세계가 이로움을 얻기를 바란다. 이 열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의 항상 고통과 고뇌들이 나를 따라왔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에 의지하고, 노력할 때, 문제를 해결 할 길을 항상 있다고 믿고 있고,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 걸친 나의 경험으로부터 이로움을 얻는다면 나는 더없이 기쁘고 또한 영광스러울 것이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높이 인정받아, 세계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가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로, 40년간 아연 연구에 몰두한 아연 전문 재미과학자이다. [MARQUIS WHO'S WHO]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인더월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 5만여 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그는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논문과 저술을 통해 생화학 분야와 의과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다. 그가 쓴 논문과 저서들은 미국 의학계에서 많은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송 박사

는 40년간 인체의 당뇨병과 비만 같은 난치병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성과와 업적을 이뤘다. 인슐린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 신 합성물질(PRO-Z, Cydo-z)라고 명명했다. Cydo-z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FDA)로부터 전 임상 및 1차 임상이 2006년도에 통과되었고, 현재는 2차 임상이 미국 FDA에서 진행 중이며, 2014년경 임상 결과를 발표 예정이고, 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 과정을 밟게 된다. PRO-Z는 미국 FDA-IND(투여 실험이 인가된 신약)의 허가를 받아 임상 실험을 거쳐 뉴트라슈티컬(준 의약품)로 분류된 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당뇨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임상보고에 의하면 PRO-Z를 복용한 당뇨환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 현재 맞고 있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혈당강화제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송 박사는 “치료제 승인을 얻어 신약으로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

기 때문에 일단 뉴트라슈티컬로 당뇨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유명한 벤처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 “PRO-Z”로 적극 공급할 계획이어서 연구 성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후 하와이대학교에서 분자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유전학으로 박사후기 과정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 LA소재 UCLA의과대학에서 생화학분야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미국정부 산하 기관인 VA Greater Los Angeles Healthcare System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한국 정부의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에 초청된 바 있다. 현재도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연 관련 주요 연구성과로 당뇨,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세계 주요국에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현대 신약으로써의 허가를

위한 임상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연 관련 주요 연구성과로 당뇨,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세계 주요국에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현대 신약으로써의 허가를



송문기 박사

송문기 박사 약력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제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최근 연구 경력  
1993 ~ 현재 연구교수, 소아과전문, 소아과, UCLA 의과대  
1994 ~ 1997 연구원, 미 국가 보훈처 산하 병원(LA소재)  
1995 ~ 1996 해외고급 과학두뇌 초빙활용 사업, 과학기술대학교(한국)  
1997 ~ 현재 RESEARCH SCIENTIST(WOC), VAGLA HEALTHCARE SYSTEM.

## 당뇨병 완치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의 빈발하는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는 일반이론이다. 그러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 온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재미 과학자 송문기 박사와 그 연구진들은 Zinc(아연)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되는 사실에 주목했다. 송문기 박사는 Histidine과 Proline을 합성한 Cyclohispro(이하 CHP로 표기)가 체내 아연흡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

킨다는 점에 착안해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비만성 당뇨환자로 인해 국가 의료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전역에서 180여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연방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당뇨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잠재적 가치를 크게 인정해 송 박사팀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 지원 자금(Special Reward Fund)을 마련해 FDA 임상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100% 천연성분의 당뇨원인 개선제 “프로지(PRO-Z)”

프로지(PRO-Z)란? 제2형 당뇨병의 근본원인, 즉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서 당의 대사를 거부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당대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하여 당은 자연스럽게 소화되기 시작하며 대략 복용 3-6개월 후엔 당뇨병 중 경증까지 못 하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 수치가 내리기 시작하고 피로감 역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체에 부작용이 전혀 없음은 물론 간 기능, 신장기능을 좋게 하여 부수적 효과도 있고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시키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제품이다.

프로지(PRO-Z) 주성분은 소의 전립선추출물(bovine prostate extract)과 아연(zinc)으로, 소의 전립선추출물이 체내 아연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당뇨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solution이다. 아연(Zinc)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에 관여하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의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아연결핍 증상을 보이는 대다수 당뇨환자에게 소의 전립선 추출물과 아연을 함께 제공하여 (제조방법 미국 및 유럽 특허취득) 아연의 체내흡수 증가

를 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당뇨 관련 증상의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효능검증은 1997년 US DVA Medical Research Service 지원을 받아 직접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pilot clinical trial(12주)을 실시한 결과, HbA1c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개선 결과를 확인하였으며(22% 정도 증상 개선 효과 확인, HbA1c 12.2% → 9.50%) 공복혈당의 경우도 개선효과를 보인 약 70%의 환자에서 29% 정도의 (221mg/dL → 156mg/dL)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왜 아연(Zinc)인가?

아연은 거의 300여개의 금속결합 효소와 단백질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효소들은 글루코스 신진대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및 인슐린 수용체의 합성과 연관돼 있다. 또한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의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이며 인슐린 분비를 심하게 자극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아연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연결핍 유발요인으로는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담배와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다. 특히 당뇨환자들은 대부분 아연결핍증상을 보인다. 아연의 특성상 공급을 해도 짧은 순간 방출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

나 송 박사팀이 개발한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은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 온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되는 사실에 주목해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다. 아연과 당뇨병과 관련된 기능은 적어도 70년동안 의료계는 당뇨병의 결과로서 아연대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아연대사와 당뇨병 사이의 중요한 관련이 과학문헌에서 명확히 확립돼 있다. 기존 아연 섭취시 최대 단점이 인체 내에 짧은 순간 머물고 방출돼 아연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CHP가 체

## 핵심기술 기본 원리

내 아연흡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하게 됐다. CHP로 킬레이트화 된 결정형 아연으로 이뤄진 조성물을 개발하게 됐다. 아미노산과 킬레이트된 아연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각종 형태의 아연보다 3~4배의 높은 흡수 이용률을 보여준다. 특히 신 합성물질은 인슐린 소화효소(IDE)를 자극시키는 것으로 증명됐다. 즉 인슐린 소화효소 활동을 강화시키고 합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혈액속에 고인슐린혈증이 개선된다. 고인슐린혈증은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킨다. 아울러 아연은

인슐린 소화효소의 한 부분이며 인슐린 소화효소의 활동에 필요한 인자다. 신 합성물질의 최적 복용량이 기존의 혈당조절제와 비교하면 인슐린의 반응도는 상당히 향상된다. 이는 신 합성물질이 다른 부작용 걱정없이 당뇨를 단기간에 조절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PRO-Z USA**  
미주 프로지 판매처  
문의 T)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L.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이스라엘 단기선교(10박11일) \$1,999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1,799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3~11.14 -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11박12일) \$2,899
- 2014. 11.10~11.17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3개국(12박13일) \$3,199

<※ 위와같은, 5월~7월 등주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땅을 밟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3)

#### 3) 야웨인가 여호와인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성경에 나타난 YHWH(יהוה)의 모음표기가 맞다면 이 말은 “야웨”가 아니라 “예와”라고 읽어야 한다. “야웨”라고 읽기 위해서는 모음의 위치를 바꿔서 יהוה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올바른 표기법은 יהוה이다. יהוה에 있어서의 모음표기는 “이름”을 뜻하는 아람어의 “쉐마”(שמ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왜 원래의 발음과는 다른 이런 모음부호를 붙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대신에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람어를 사용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회당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타르굼(Targum)이라 하는데, 이 타르굼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를 “거룩한 자”, “말씀” 또는 “이름”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이름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위에 나온 쉘마(שמה)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YHWH(יהוה)에 바로 이 모음부호를 붙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전에 모음부호를 붙이기 시작하던 때가 10세기경이고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였는데, 왜 하필이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의 모음표기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보다는 조금 후에 보게 되듯이 “여호와”라고 표기된 경우와 같이 “아도나이(יהוה)”의 모음부호를 붙인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יהוה의 발음이 “야웨”나 “야웨”(יהוה)라고 보는 근거는 이 말의 발음을 기독교초기에서 희랍어로 옮길 때의 표기법이다.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클레멘트(Clement, 140 /50-211/15)는 이를 Ἰαουε̅로 표기하였고, Cyprus의 Theodoret(약

395-466)은 Ἰαβε̅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코이네를 사용하게 되면서 희랍어의 β는 영어의 약한 V와 같이 발음하였다. 따라서 Ἰαουε̅의 발음은 야웨(Iawe)이고 Ἰαβε̅의 발음은 야베(Iave)가 된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웨”와 “베”는 서로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접속사 ו를 와우(waw)라고도 읽고 바브(vav)라고도 읽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발음은 사실상 동일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AD1세기 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문서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오”, “야베”, 그리고 “야웨”의 세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יהוה의 발음이 “야웨”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어가 나타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יהוה)라고 읽는다. 이 말은 “주인” 또는 “지배자”(lord, master, owner, ruler)를 뜻하는 “아돈(יהוה)”에서 나왔는데, 사람을 부를 때는 “아도니(יהוה)”로 표기되며, 그 뜻은 “나의 주인(my lord)”이다. 그러나 이 말은 상대방이 주인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우리말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름 다음에 “씨” 또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영어에서는 “Mr.”나 “Sir”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창 24:18에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부를 때도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할 경우엔 아도니(יהוה)의 복수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나이(יהוה)로 표기된다. 자음은 동일한데 모음부호만 다르다. 이것은 뒤에서 고찰하게 될 엘로힘(אלהים)의 경우처럼 소위 장엄의 복수(pluralis majestatis; majestic plural)에 해당한다. 장엄의 복수란 어떤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수이다. Septuagint 즉 70인역 구약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을 희랍어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κύριος)란 말을 사용하였으나 “지배자”를 뜻하는 “데스포테스”(δεσποτης)로 번역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밑에서 보게 되듯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장엄의 복수 대신 단수 원형인 “아돈(יהוה)”이란 말이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처럼 YHWH(יהוה)란 단어가 나타나면 이 말을 “야웨”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יהוה)”란 말로 고쳐 읽는 이러한 전통 또는 관습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은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출20:7과 신5:11에 근거한 것인데, 레 18:21에도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은 바빌론포로 귀환(BC 539) 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고레스 즉 사이러스 대제(Cyrus the Great)는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서에서 “하늘의 하나님 야웨”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공표된 다리우스(Darius I) 칙서에는 “야웨”라는 명칭 없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호칭들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비커만에 의하면 주전 520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

성된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통치자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오직 속죄일에만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근동학자요 고고학자인 올브라이트(Albright)는 YHWH(יהוה)란 하나님의 명칭인 이 단어를 발음하는 일이 주전 4세기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커만에 의하면 이 명칭이 주전 3세기에든 빈번히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저명한 두 학자들의 이러한 상이한 견해는 올브라이트가 하나님의 명칭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비커만은 그 명칭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점차 금기시되었음은 물론이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습은 신약시대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고, 이러한 전통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야웨”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쿰란문서 중에 나온다. 1QS6:27-7:2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전을 읽거나 축복하는 가운데, 경술에 의한 것이라 아니면 어떤 충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에서든, 가장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추방되고 다시는 공동체 회중에 돌아오지 못한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는 Jehovah라고 쓰고 “제호바”라고 읽었고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읽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YHWH가 나오면 그 이름을 발음하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읽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YHWH란 명칭에다 “아도나이”의 모음부호

를 붙이게 비롯된 것이다. 만일 아도나이(יהוה)의 모음부호를 YHWH(יהוה)에 붙이면 “야호와이”(יהוה 또는 יהו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대신 요드(י)가 생략된 “예호와” 또는 “예호와”(יהוה)가 나타난다.

앞서 말한대로 영어의 “Jehovah”와 우리말의 “여호와”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YHWH(יהוה) 앞에 “아도나이(יהוה)”가 이미 있을 때는 두 번 “아도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YHWH에 엘로힘(אלהים)의 모음부호가 붙여져 “에위(יהוה)” 또는 “에위(יהוה)” 혹은 드물기는 하지만 “에호위(יהוה)”의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이 두 말이 결합할 때 아도나이(יהוה)가 YHWH 앞에 오는 것이 상례지만 합3:19; 시16:2에서처럼 예외적으로 아도나이가 YHWH 뒤에 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서로 같은 뜻인데도 YHWH 앞에 “아도나이(יהוה)” 대신 “아돈(יהוה)”이 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도나이크(יהוה)”에서와 같이 아도나이에 인칭대명사가 붙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YHWH 밑의 모음부호에 관계없이 어느 경우나 “여호와”로 표기되었다.

언제부터 서구에서 “예호와(Jehovah)” 즉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했는지 확실치 않으나 12세기부터였다는 설과 14세기부터였다는 설 또는 막연히 중세 때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현재 영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rown-Driver-Briggs의 Hebrew and English Lexicon에 의하면 이 발음은 1520년 갈라티누스(Galatinus)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17-8 세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발음을 선호하였는데, “야웨”가 옳은 발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게네브라르두스(Genebrardus)였다고 한다. (계속)

### 눈물의 미학(美學)

텔레비전이 방영하는 인생극장의 주인공들은 모두 거친 삶을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부딪치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진 곳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고통을 통한 영혼의 정화는 인내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된 ‘장 도미니크 보비’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이용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왼쪽 눈꺼풀을 깜박거리고 그것을 비서가 적어서 나온 이 책에는 그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입에 고여 흘러 넘치는 짐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면 가장 행복이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람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중동 지역은 비가 없는 곳이기 때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문에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막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햇살은 사막

을 만듭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비도 와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질 때 생명의 환희가 일어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웃음 그 자체도 하나의 광대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눈물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예

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울어본 그 사람이 차원 높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통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합니다.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젖은 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애통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합니다.

##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이사장 김영대 목사



대표 김영길 목사

일 시 : 6월 15일(주일)오후6시  
 장 소 : 월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주 최 : 남가주 한인 청소년 비전 센터  
 문 의 : (714)904-6298, kyvclove@yahoo.com  
 감사한인교회,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 월셔연합감리교회, Morningstar Concert Choir, Peniel Women's Choi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rale, Soong Eui Choros, Soong Sil OB Men's Choir, Yonsei University Choir, Kairos Mission Worship Dance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찾다

데이비드 스완슨 | 생명의말씀사 | 256쪽

어떤 이들은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명상을 하고, 심리학에 몰두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의 제자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 그의 놀랍고 영광스런 임재에 의해 규정된다.



####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조이스 마이어 | 두란노 | 240쪽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를 쓴 저자가 이번에는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나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좋은 습관을 통해 나쁜 습관을 끊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으로, 이는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발판이다.



#### 네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박운서 | 코리아닷컴 | 248쪽

대한민국 초대 통상산업부 차관인 저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이야기.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듯, 저자는 필리핀 오지 중의 오지 민도로섬 망안족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공직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듯, 선교지에서서도 마찬가지이다.



#### 광야의 반란

신득일 | CLC | 248쪽

부제 '이스라엘의 반란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여정 도중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여덟 차례에 달하는 반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앙, 직분자의 권위 사용과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등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 REVIEW

### 어려움 당한 이들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책과 DVD로 구성된 이 출판물에 등장하는 5명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애통하는 자'들의 상징이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혼혈인 '배기철' 씨입니다. 그는 혼혈인이지만, 그 서러움을 믿음으로 넘어서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그는, 오늘도 서울 무속인촌을 '사마리아'로 여기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그냥 기도만 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거든.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을 알고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야만 되지. 그동안 전국의 무속인들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주 만나서 전도하는 일을 했거든."

저자인 김우현 감독은 전도된 사람이 있는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배기철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러 명 전도했지. 이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들 공허하고 고통이 많아.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마음을 열고 대하면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야."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로 사역하는 '한재성' 선교사입니다. 2004년 9월 13일, 한재성·김진희 선교사 집애 강도가 침입해 아내인 김 선교사가 피살당합니다. '주'를 위해 먼 이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끝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장례식 때 읽으려 쓴 그의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실 줄이야..." 그의 애통함이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선교사는 아내의 피값을 열매로 맺기 위해 다시 그 카자흐스탄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태국에서 순교한 '김상렬' 청년입니다. 2001년 8월, 태국 치앙마이 빠마이에서 김상렬 청년은 산족 아이들을 위해 길을 닦는 봉사를 하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제사랑봉사단 단원으로 섬기다, 스무 살의 나이로 일기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상렬 군의 희생 이후 오지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이 생겼고, 태국 현지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산족들이 늦은 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조은령' 감독입니다. 미국 뉴욕대 영화과 출신으로 단편영화 '스케이트'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촉망받던 여성 영화감독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욕심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풍경을 담겠다는 사명을 가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우현 | 규장 | 248쪽

고 영화를 제작했는데, 2003년 집에서 실족사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화 작업을 했던 그녀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도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김선일' 씨입니다. 부산신학대, 한국외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꿈꿔왔던 이슬람 선교를 위해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라크에 간 인물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인생이 괴롭다고 했지만, 그는 항상 1천 디나르(dinar)씩 바꾸어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으면 자신이 더 주겠다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목사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김선일 씨를 비난했지만, 이 책을 읽고 뒷이야기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커서 이라크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하늘뜻섬김지기 이훈 목사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 및 빵 주문시 할인해 드립니다"

operahousebakery@gmail.com  
 T. (213)384-1999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웨딩케익 및 단체주문 환영



최고의 아빠가 되는 것, 평생에 걸친 여행

아이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빠의 사랑법>

'맛별이' 일상화와 핵가족화 등 서구화된 환경으로, '아빠(남성)'의 육아나 집안일 참여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다. '딸바보'라는 말을 비롯 '아빠 어디가?(MBC)',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등 '아빠와 가정'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세계 다양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아빠들과 아빠 역할을 연구해 왔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빠의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에서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감옥에 가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고등학교에서 낙제하거나 사생아를 낳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일찍 비명횡사할 확률이 2-3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저자는 20대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사역했고, 30대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전문가로 승승

장구했으며, 아이비리그 교수와 외교관까지 지냈다.

그러나 "내가 했던 모든 역할들, 심지어 권위 있는 상을 받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 낸 역할들도 그 일을 나보다 더 잘 해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로서 나의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그는 아빠 없이 자라야 했다. 어릴 때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슬과 파괴적인 행동들 때문에 아빠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고 한다.

부모는 그가 청년이 되자마자 이혼을 했고, 아빠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네 아이의 아빠가 된 저자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지금 그냥 좋은 아빠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모로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



아빠의 사랑법  
그레고리 슬레이튼  
두란노 | 256쪽

의 공통점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가족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고, 멋진 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가려고 하는 곳의 '분명한 지도'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아빠가 되길 원하는지, 5년, 10년 후 어떤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비전'이다.

둘째는 그곳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강력한 '여행 장비'이며, 셋째는 함께 여행하며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중요한 사람들, 아내나 좋은 동료 아빠들 같은 '헌신된 팀'이다.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행 장비', 즉 올바른 사랑법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10가지 사랑법은 수천 년 동안 지속돼 온 성경의 가치와 원칙들에 근거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 ①우선순위 ②부부 관계 ③돈보다 가치 ④다정다감 ⑤집안일 하기 ⑥공감하기 ⑦기도하기 ⑧팀워크 만들기

⑨포기하지 않기 ⑩사랑의 완성.

이후 저자는 '싱글 대디'나 '기러기 아빠'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빠는 여전히 아빠"라면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시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상과 질병, 심지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갑작스런 죽음 같은 일이 생길 때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 인생의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운다.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다시 하기'는 없을 것이다. 아빠의 여행은 쉽지 않으며,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부디 아빠의 여행을 앞두고 피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매일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힘과 지혜, 사랑과 용기, 기쁨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대웅 기자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 침체의 원인과 처방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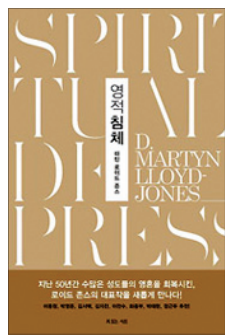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영적 침체>

신앙생활이 늘 활기차고 기쁘지만 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자신의 모난 성격도 남아있으며, 삶의 환경과 조건이 급작스럽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렇듯 마귀의 '작은' 시험에 걸려들면, 그간 '은혜'의 힘에 놀려 있던 갖가지 '시한폭탄'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 신앙의 근본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이 문제다.

50여년 전 쓰인 <영적 침체>는 다양한 이유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내리는 '처방전'이다. 촉망받던 의사 출신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총 21차례의 설교를 통해, 단순한 펄질식 '일회성 치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TV 드라마에 나오는 외과 의사처럼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에 '메스(mes)'를 들이댄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그리스



영적 침체  
마틴 로이드 존스  
복있는 사람 | 426쪽

도인이 침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고,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유는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의 존재이고, 이는 '불신앙'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공격에 넘

어지는 것입니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21차례의 설교를 통해, 심리학이나 의학 등 여타 과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고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경이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얼마나 자주 다루는지 살펴보면 흥미롭다"며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침체가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구약 성경이 공히 이 상태를 묘사하거나 다루는 것을 보면, 침체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온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성경은 모든 영적인 상태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항상 그 가르침을 먼저 살펴본 다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실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실례와 일화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일화에 담긴 원리를 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파악하기보다 남의 체험에 기대 살거나 그 체험을 욕심내다 혼란에 빠지고 견잡을 수 없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경은 가르침과 실례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겸 겸 경고와 보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중대한 원리마다 각각의 실례를 보여주심으로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알려 주십니다."

'치료법'도 목회자들의 보통 '처방전'과는 살짝 다르고,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

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정신(지성과 지각)과 마음(감정)과 의지(결단)를 모두 사용해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죄 때문에 괴롭더라도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무작정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라는 것, 과거의 문제로 침체에 빠지는 것은 순전한 시간 낭비로 힘의 낭비이며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 실패할 뿐이라는 등 다각도로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대표작 중 하나.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원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창립 6주년 감사세일!

**Buy 2 Get 1 FREE!**  
2박스 구입시 1박스를 더 드립니다. (~6월말까지, 본사, 대리점 동시 실시)

"약사들이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

당뇨/콜레스테롤/혈관청소에는 -  
**세종송보감**

서울대병원 임상으로 혈당, 콜레스테롤조절 효능인정  
KFDA(한국식약처)공인 건강기능식품  
서울약사시험의 연구로 효능업그레이드

세종바이오텍 6주년 감사세일!  
창립 6주년 기념으로 혈관청소, 혈당조절에 좋은 세종송보감과 소변관리, 방광염, 전립선기능개선에 좋은 세종요로청보감을 바이2 갯프리 행사를 실시합니다.

- [세종송보감]은 이런 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 당뇨로 고생 또는 내당능장애(당뇨예비환자)가 있으신 분
  - 혈액순환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염려되는 분
  - 과다 콜레스테롤로 걱정이 크신 분
  - 갱년기증세를 극복하기 원하시는 분
  - 집안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신 분
  - 피부가 거칠고 악성 여드름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
  - 잦은 음주와 수면 부족으로 하루가 힘드신 분



- 서울약사시험의 연구로 개발된 세종송보감
- 건강식품회사로서 최초로 서울약사시험과 업무체결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공인한 건강기능식품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os Angeles, CA 90005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KFA, GMP, ISO  
공인된 건강기능식품만을 공급합니다.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40%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해당미네랄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미네랄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혈당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2014 SONATA GLS ALL IN STOCK @ \$22,425 Lease for \$99 PLUS TAX @ 36 MONTHS

2014 SANTA FE SPORT 2.4 ALL IN STOCK @ 26,115 Lease for \$199 PLUS TAX @ 36 MONTHS

2013 GENESIS COUPE 2.0T M/T ALL IN STOCK @ 25,490 UP TO \$5,000 OFF

2013 GENESIS Sedan 3.8 풀옵션 ALL IN STOCK @ 44,385 UP TO \$10,000 OFF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CA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코헨신학대 제26회 학위수여식 개최 '153개국 신학대 설립' 향해 발 내딛다

# “코헨의 신학,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 있는 눈 열어줘”

코헨신학대학교(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제26회 학위수여식이 5월 30일 오후 4시 남가주 토랜스에 위치한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유대계 미국인이며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 게리 코헨(Gary G. Cohen) 박사가 역사신학자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실천신학자 윌리엄 케인 박사, 조직신학자 강신권 박사와 함께 198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설립한 코헨신학대는 '정통보수신학과 세계선교신학'을 추구하며 세계 153개국에 신학교를 세우는 '비전 153'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는 103개국 중 미국, 캐나다,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에서 학사 211명, 석사 52명, 박사 53명, 명예박사 8명 등 총 32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로날드 밴더메이 총장의 개회기도 후 '그린란드의 얼음산(Greenland's Icy Mountain)'을 개회찬송으로 불렀다. 이어 게리 코헨 명예총장이 축사를 전한 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God Is With Us)"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근 우리는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은메달을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헌신해야 한다."

그는 이사가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를 바탕으로 이 예언이 나온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과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는 코헨 명예총장과 함께 코헨신학대학교와 학사 교류를 체결한 피드먼트대학(Piedmont University)의 윌리엄 스티드 총장과 APU(American Premier University)의 알렉스 파시니아 총장이 각각 학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밴더메이 총장이 석사 학위를, 미셸 강 이사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특별상 수여식도 이어졌다. 이상진 박사가 성직우수상을, 신원선 박사가 공로상을, 김원수, 이광섭, 장규원, 손철구, 류철배, 김영동, 문동진, 여찬근 박사(우수논문상을, 이집트 콥트교인이며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을 운영하며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카리아 보트로스 목사가 국제지도자상을, 현대무용가 육완순 박사가 국제리더십상을 수상했다.

이광섭, 손철구, 류철배, 여찬근 박사에게 미국연방정부 교수자격증(PTC/ETA)을 전달한 후, 임복만 국제부총장이 봉헌기도를 했으며, Angel Team for Praise the Lord가 축가를 불렀다. 스티드 총장과 파시니아 총장이 축사를 전한 후, 보트로스 목사가 특별연설을 했다. 브라질 코헨신학교 호산나 찬양대와 이상진 박사가 특별찬양을 한 후, 코헨 명예총장의 축도로 졸업식의 막이 내렸다.

1988년 9월 미국장로교 B.P.C.A. 교단으로부터 총회신학교로 인준을 받은 코헨신학대는 1999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승인을 받았으며 WBPC의 세계본부를 맡고 있다. 5월 말 기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103개 분교를 설립했고 1백여 명의 교수진을 통해 15개의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6천 5백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통신학의 기반 위에 융합신학을

펼쳐가는 코헨대학교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히브리적 사고에 관한 강조다. 유대인 아론 제사장의 후손인 코헨 박사로부터 영향 받은 이 기초는, 오늘날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틀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당시 히브리인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배경, 사고의 틀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설교와 목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코헨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입을 모은다.

"영성을 기초로 한 교회성장 연구(A Study of the Church Growth based upon the Spirituality)"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원수 목사(일산 주님의교회)는 "강신권 총장을 잘 아는 동료 목사의 소개로 강 총장의 신학 강의를 접하고, 깊이 있는 성경해석에 깊은 감명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며 박사 과정을 통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전에 충실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됐고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의한 설교를 하게 됐다. 설교의 패러다임과 목회 패러다임,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성경은 유대인이 쓴 책이기에 히브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다. 코헨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목회의 새로운 전환을 맞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약적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를 적용하기 위한 멘토링(Mentoring for the Application of Spiritual Gifts in Accordance with the New Testament)"을 연구한 이광섭 박사(분당 예수세계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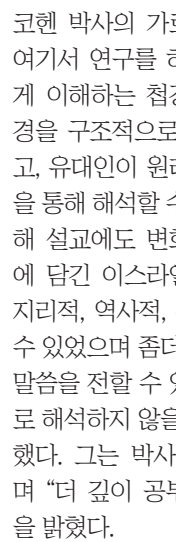
해하고 싶은 것이 학업의 계기가 됐다. 성경이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으로 기록됐기에 그 방식이 아니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유대인인 코헨 박사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여기서 연구를 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유대인이 원래 지니고 있던 의식을 통해 해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설교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성경에 담긴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철학적 간격을 좁힐 수 있었으며 좀더 친근하고 생생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멋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 과정이 "재밌었다"며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빌립 보서의 문맥적 통일성 연구(The Study of Contextual Consistency in Philippians)"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손철구 목사(고양시 흥익교회)는 코헨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비전 153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선교 비전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일본에서 공부하느라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교회에서 현재 교회학교, 열방선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헨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은 것을 적용해 더욱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남았다"고 했다.

"하나님의 의도로 본 십일조(Tithe that God Designed)"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여찬근 목사(남서울중앙교회)는 "선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해서 코헨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코헨대학교를 통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학업



이광섭 목사



손철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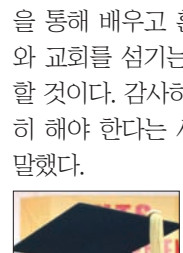
여찬근 목사

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선교와 교회를 섬기는 데 적용하고 사용할 것이다.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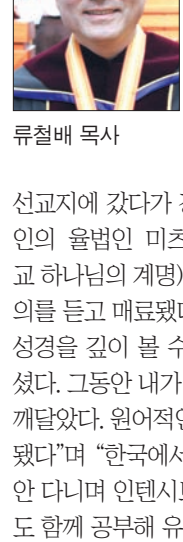
"신구약 중간사(A Study of GOD'S Management Appeared in the Intertestamental Period)"를 연구한 류철배 목사(수원 보배로운교회)는 "일본 선교지에 갔다가 강 총장을 만나 유대인의 율법인 미츠보트(Mitzvot, 유대교 하나님의 계명) 613 율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매료됐다. 원어 해석을 통해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다. 그동안 내가 성경을 알게 됐음을 깨달았다. 원어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봄, 가을로 3년 동안 다니며 인텐시브 과정으로 10명 정도 함께 공부해 유익하고 재밌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코헨신학대 동남아시아 지역 총장으로 임명된 임복만 목사(청주원도교회, 코헨대 국제부총장 역임)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동남아 각 나라 학생과 졸업생을 돌보며 153개국에 코헨 분교를 설립해 전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비전 153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총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신학에 대한 열정을 잃고,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코헨대학교는 선교적 열망이 가득한 신학교다. 많은 학교가 자유주의로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잃어가는 시대에 코헨은 철저한 보수주의, 성서중심주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세상의 모델이 되는 학교다. 동남아 지역은 여러 토착 종교들의 교세가 크기에, 사명이 더 크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헨대학교는 '비전 153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로 기독교 UN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153개국에 분교가 세워지면 인천에 세계선교의 총본부를 설립해 전세계 선교 대표가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선교를 보고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며 국가별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류철배 목사



임복만 목사



남가주 토랜스에 분교를 두고 있는 코헨신학대학교가 제26회 졸업식을 맞이했다.

주디 한 기자



#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 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June Special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9** <sup>+TAX</sup>  
**36**  
Mon.

MSRP: \$55955 / SELL: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 <sup>+TAX</sup>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sup>+FEES</sup>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